

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

## 제 9강: 사제들의 직무(17-19장)

### I. 오늘의 포인트

- 1)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그 의의를 살핀다(17장)
- 2)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무와 생계 수단은 무엇인가?(18장)
- 3) 부정을 씻는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(19장)

### II. 본 강의

#### 1.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그 의의(17장)

##### 1) 지팡이 시험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(1-9절)

- (1) 테스트의 목적: 하나님이 인정한 제의적 우두머리는 누구인가?
- (2) 열두 지파와 더불어 레위 지파(아론)의 지팡이: 이름 새김
- (3) 지팡이들을 모세가 지성소 안의 법궤 앞에 둠
- (4) 지팡이는 몇 개?

“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”(17:6)

- (5) 의문점: 고라와 아론의 다툼인데 왜 전체를 테스트?

답변: 아론의 권위가 12지파 전체 앞에서 재공인될 필요가 있음

##### 2) 테스트 결과: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남 -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현상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는 지팡이!

암시된 의미? 아론의 생명을 살리는 권한, 속죄의 권한의 확증?

##### 3) 법궤 앞에 보관한 싹난 지팡이: 히 9장과 모순

그 외 오경에서 확인되는 법궤에 딸린 귀중품들의 위치

- (1) 십계명 돌판: 법궤 안(출 25:16)
- (2) 아론의 지팡이: 법궤 앞(민 17:10)
- (3) 만나 향아리: 법궤 앞(출 16:33-34)
- (4) 언약서(아마 신명기나 오경): 법궤 곁 (신 31:24-26)

#### 2. 사제들의 책무와 생계 수단(18장)

18장의 내용

사제들의 직무와 주의 사항(1-7절)

사제들의 몫의 헌물들: 생계 수단(8-32절)

1) 사제들의 성막 봉사가 필요한 이유

- (1) 백성들 한탄: “성막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을 것이다”
- (2) 사제들이 대신 그 위험부담을 감수: “백성의 죄를 담당”
- (3) 성소는 너무 위험한 공간: 강한 거룩의 기운이 흐름
- (4) 사제들은 마치 피뢰침 역할

2) 제사장 보조자인 레위인(1-5절)

- (1) 주요 제사 용품을 만지면 안된다: 특히 내성소의 비품들
- (2) 내성소에 들어가거나 안을 보면 안된다
- (3) 레위인은 제사 인도자가 아닌 도우미이다.

3) 제사장의 직무와 출입금지 구역(6-7절)

- (1) 내성소 출입을 하며 특수한 예식을 맡는다
- (2) “외인”이 내성소에 출입하면 죽는다
- (3) 대제사장만이 “휘장 안”(지성소의 휘장)의 일을 맡는다: 속죄일

4) 제사장 몫의 헌물들: 생계 수단(8-32절)

- (1) 제단의 제물들에서 남은 것(지성물): 소제, 속죄제/속건제, (화목제?)
- (2) 여러 봉헌물(성물): 화목제(성물)를 포함?
- (3) 첫 소산물: 첫 곡식(얼만큼?), 새 기름, 새 포도주
- (4) 헤렘(전적 바친 헌물)
- (5) 첫 태생들: 부정함 짐승의 경우(출 13:13), 장자의 경우 5세겔
- (6) 십일조: 레위인들의 십일조 중의 십일조

\* 이것은 소금 약속(언약): 변할 수 없음

5) 십일조(21-32절)

- (1) 땅이 없는 레위인의 기업
- (2) 레위인의 십일조 중의 십일조는 제사장 몫
- (3) 십일조 - 구약의 난제  
: 두 종류의 십일조? 세 종류의 십일조? 품목들은?

### 3. 부정을 씻는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(19장)

19장 내용 구분

붉은 암송아지 재 만들기(1-10절)

잿물 제조법과 사용법(11-22절)

1) 붉은 송아지 재 만들기(1-10절)

- (1)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도살
- (2)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을 향해 7회 뿌림(무슨 효과?)
- (3) 암소를 불사름(전체 - 똥 포함: 피째 태우는 것이 핵심)  
백향목/우슬초/홍색실 첨가해서 소각
- (4) 제사장 - 목욕과 세탁 후 복귀, 저녁까지 부정
- (5) 송아지 태운 자 - 동일함

\* 핵심요소: “붉은” 송아지, 피, 백향목/우슬초/홍색실

## 2)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(11-22절)

- (1) 재 보관 장소: “진영 밖 정결한 곳”(재 버리는 곳)
- (2) 흐르는 물에 재를 섞어서 “잿물”을 만들: “부정을 씻는 물”
- (3) 사용대상: 집단 사체 접촉 - 장례, 전쟁 / 레위인 임직
- (4) 7일 동안 두 번 뿌림: 3일째, 7일째, 이어서 목욕과 세탁
- (5) 약식 속죄제: “이것은 속죄제니라”(19:9), “속죄(제)의 물”(민 8:7)

### III. 오늘의 적용

- 1)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시다.
- 2)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론의 권위와 직무를 성취하셨다.
- 3) 사제들의 생계를 보장하듯이 오늘날도 사역자들 뒷바라지는 성경적이다.
- 4) 우리는 강력한 세척제인 “정결수 잿물”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.